

'25년 11월 시청자위원회 운영실적

방송사명 : 광주문화방송

1. 회의 개최

연번	일시	장소	참석인원				회의형태		
			시청자 위원 (참석인원/ 총인원)	방송사		총 인원 (명)	대면	온라인	서면
				경영진 (명)	경영진 외(명)				
25-11	11.21	회의실	9/12	4	1	14	○	-	-

o 회의 참석자 명단

① 시청자위원 명단 : 김동진·반수경·설제학·양지현·유한별·이경주·이미진·정인영·정희(9명)

② 방송국 관계자 명단

- 경영진(대표(사장), 제작 및 편성부서 국실장급 또는 이에 준하는 직급) : -김낙곤(사장), 원승연(경영본부장), 김민호(콘텐츠본부장), 김철원(보도본부장)

- 경영진 외 : -황형철(경영심의팀 부장)

2. 심의 결과 및 조치현황

가. 의견제시(시정요구) 및 시청자권익보호 등의 논의 안건(건수)

방송 편성	방송프로그램					자체 심의규정	합계
	보도	교양	연예·오락 (스포츠)	기타	소계		
0	5	3	0	1	9	0	9

나. 사업자 반영(건수)

구분	수용	의견참고	반론	계
건수	9	0	0	9

다. 의견제시(시정요구)에 대한 조치내용

구분	의견제시(시정 요구)내용	조치내용	제시월
보도	인공태양 등 에너지 사업 관련 내용 계속 다뤄주길 바람	<뉴스데스크> 인공태양 나주 유치 광주시·전남도 일제히 환영(11.25), <뉴스투데이> 인공태양 연구시설 1순위 나주로 선정(11.25), 전북도 이의신청·법적대응 강구(11.26), <5시 뉴스> 김영록, “인공태양, AI 에너지 수도 마지막 퍼즐 완성(11.25) 등 방송 조치	’25.11
"	<시사용광로> 인공태양 유지 관련, 장기적인 과제, 지역 산업 연결 등 제시 부족 아쉬움	보도 책임자와 프로그램 담당자 의견 전달 및 제작 시 의견 반영 권고 조치	"
"	기초지자체의 행정을 감시하는 역할 기대함	<뉴스데스크> “불법 현수막, 예외 없이 단속하겠다”(11.26), 군마다 교통비 무료 정책··지방선거용?(12.2), <뉴스투데이> 골목형 상점가, 혁신도시 상권 살릴까(11.3) 등 방송 조치	"
"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다양한 관심이 필요	<뉴스데스크> 광주공항 국내선 이전, 예정대로 가능한가(11.21), 광주공항-인천공항 국내선 취항 검토(11.28), 광주 청년들, 수도권으로 떠난다(12.5), <뉴스투데이> 시골 유학 오면 ‘집 주고, 돈 주고’(11.24), 지역 방송의 위기··재원 확보 시급(11.28), 캠페인 <지역균형발전이 국가발전입니다> 전개 등 방송 조치	"
"	AI 관련 내용 지속해 다뤄주길 바람	<뉴스데스크> 제조산업 특화형 AI로 승부(11.24), 응급환자 구한 AI전화··“확대 필요(11.28), <뉴스투데이> ‘복지 사각지대’ 없애는 AI로봇의 활약(11.24), ‘도로 위 지뢰’··AI로 찾는다(11.28), 광양만권 데이터센터 ‘허브’ 가능성(12.3), <빛나는 나의 도시> 광주의 변화 비전을 묻다(12.10) 등 방송 조치	"

교양	<빛나는 나의 도시>, 단순한 관광 정보 제공 아쉬움. 지역 이해를 위한 내용 필요	편성 책임자와 담당자 의견 전달 및 제작 시 의견 반영 권고 조치	"
"	<빛나는 나의 도시>, 당신의 사진첩, 특색 없는 음식 소개 등 프로그램 주제와 맞는지 의문	편성 책임자와 담당자 의견 전달 및 제작 시 의견 반영 권고 조치	"
"	<빛나는 나의 도시>, 지역 명소 아름다운 영상 소개 바람	<빛나는 나의 도시> 송광사 단풍(11.26), 순천만습지(12.3) 등 방송 조치	"
기타	숏폼 강화, 시청자 참여형 프로그램, 지역 의제에 대한 해설형 콘텐츠 등 디지털 최적화 전략 병행 필요	숏폼 콘텐츠 업로드 지속 시행, 인공지능 중심도시 광주, 전남의 2030 교실 모델 등 지역 관련 콘텐츠 제작 등 조치	"
합계		9건	

라. 시청자 권익보호와 침해구제

요청 내용	조치 내용	조치일자	비고
해당 사항 없음			

마. 시청자평가원 선임 현황

(임기: 2000.0 ~ 2000.0)

성명	생년월일	전·현직	변동사유	비고 (임기)
해당 사항 없음				

3. 기타사항

가. 시청자위원회 회의록 공개 사항

- 홈페이지에 전문 공개

나. 상시의견수렴 실적

상시의견수렴방법	내용
단체 카카오톡 채팅방, 메일	해당 사항 없음

당월 시청자위원회의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내용에 대한 답변

구 분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내용	답변내용	비 고		
			수용	참 고	반론
보도	인공태양 등 에너지 사업 관련 내용 계속 다뤄주길 바람	인공태양을 비롯한 에너지 관련 정책 보도를 적극적으로 해나가겠음	○		
"	<시사용광로> 인공태양 유지 관련, 장기적인 과제, 지역 산업 연결 등 제시 부족 아쉬움	전라남도의 미래산업 의제를 더욱 적극적으로 발제해 보도하겠음	○		
"	기초지자체의 행정을 감시하는 역할 기대함	자치단체들의 공정하고 올바른 행정을 촉구하는 감시와 견제 보도 이어 나가겠음	○		
"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다양한 관심이 필요	지역균형발전과 공공기관 2차 지방 이전이 속도를 낼 수 있도록 촉구하는 보도 이어 나가겠음	○		
"	AI 관련 내용 지속해 다뤄주길 바람	광주는 물론 전남지역의 AI 산업 생태계가 정립할 수 있도록 지속해 보도해나가겠음	○		
교양	<빛나는 나의 도시>, 단순한 관광 정보 제공 아쉬움. 지역 이해를 위한 내용 필요	지역 관련 다양한 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깊이 있게 다루도록 노력하겠음	○		
"	<빛나는 나의 도시>, 당신의 사진첩, 특색 없는 음식 소개 등 프로그램 주제와 맞는지 의문 (반수경)	당신의 사진첩은 시청자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자 하는 코너이며, 지역 특색을 살리는 음식 발굴을 위해 노력하겠음	○		
"	<빛나는 나의 도시>, 지역 명소 아름다운 영상 소개 바람	지역 명소의 특색을 발굴하고 영상미를 살리는 콘텐츠를 제작하겠음	○		
기타	숏폼 강화, 시청자 참여형 프로그램, 지역 의제에 대한 해설형 콘텐츠 등 디지털 최적화 전략 병행 필요	제시해준 의견을 반영하여 다양한 콘텐츠를 제작하기 위해 관심을 가지겠음	○		

시청자위원회 회의록(2025년 11월)

일시	2025년 11월 21일(금) 17시	장소	회의실
참석자	위원	김동진 · 반수경 · 설제학 · 양지현 · 유한별 · 이경주 · 이미진 · 정인영 · 정희 위원(9명)	
	회사	김낙곤 사장, 원승연 경영본부장, 김민호 콘텐츠본부장, 김철원 보도본부장(4명)	

■ 회의 내용

- 이미진 부위원장 : -오늘은 위원장님께서 부득이 참석을 못 하신 관계로 제가 진행하게 됐다. 위원 12명 가운데 9명이 참석하여 성원이 되었다. 지금부터 2025년 11월 시청자위원회를 시작하겠다.
- 김낙곤 사장 : -오늘 위원회에 참석해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어느덧 한 달이 지나 11월 회의를 열게 됐다. 지난달은 창사 61주년을 맞아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시청자에게 보답하고자 했으며, 11월은 광주MBC가 열심히 준비한 <2025 대한민국 김치대전> 행사를 열게 됐다. 내일 오후 2시부터 1,122명의 시민이 모여 포기 김장을 하며 소외된 이웃에게 나눔을 실천한다. 5.18민주광장은 나눔과 연대의 상징과 같은 장소인데, 이곳에서 김장을 통해 우리 공동체 문화를 복원하고 나눔을 실천하는 기회를 얻게 됐다. 시청자위원회의 많은 관심과 참여도 당부드린다.
- 이미진 부위원장 : -<2025 대한민국 김치대전>이 성황리에 잘 치러지길 기대한다. 업무보고를 해주길 바란다.
- 김민호 콘텐츠본부장 : -10월에는 13일 <우리가락 우리문화> AI 특집 녹화, 18일 <우리가락 우리문화> 국립남도국악단 2편 방송, 24일 <정오의 희망곡> 굿모닝 양림 공개방송 녹음 26일 3부작 <두근두근 동창회> 방송이 있었다. 11월에는 4일 윤이상 서거 30주년 특집 <윤이상, 광주, 김대중> 제작, 9일 <보성 열선루 장계쓰기대회> 방송, 10일 16개 계열사 공동제작 <국가균형성장 질문 있습니다> 녹화를 진행했다. 주요 계획으로 11월21일 별교 꼬막축제 녹화와 22일 <2025 대한민국 김치대전> 생방송이 있으며, 노벨평화상 25주년 기념 <DJ의 육성 회고> 프로그램을 준비 중이다. 11월24일 <광주MBC보다> 신지동썰 코너에는 장세일 영광군수, 박병규 광산구청장 편이 방송된다.
- 김철원 보도본부장 : -최근 실적부터 보고드리겠다. 홈페이지를 전면 개편했는데, 가독성 좋고, 우리 콘텐츠 잘 알릴 수 있는 방향으로 하고자 했다. 뉴스의 영향력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창사 61주년 특집 토포니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대한민국의 길> 대담 3부작에 조국 조국혁신당 비대위원장, 김경수 지방시대위원장, 손솔 진보당 국회의원이 출연했으며, <시사용광로> 창사특집으로 성격을 변화시켜 방송했다. 창사 61주년 특집기획 <김치 세계화 어디까지 왔나> 준비 중이다. 11월22일 '김치의 날'을 앞두고 11월20일 <시사용광로> 시간에 특집기획으로 방송한다. K-푸드 세계화와 남도김치 세계화 가능성 타진하는 기획이 될 것이다. 그동안 <시사용광로>에서는 '국가 AI컴퓨팅센터 유치전, 광주시 준비는?', 창사 특집 '대한민국의 길' 3부작, '꿈의 에너지 '인공태양' 나주에 뜰까?' 등을 주제로 방송했다. 주요 계획은 11월27일 <시사용광로> '5.18 특집 국민주권시대, 5.18의 과제는?'을 주제로 안평환 광주시의원, 김순 5.18행사위 집행위원장, 김꽃비 문화기획자가 출연한다. 지역균형발전 공익캠페인 방송을 준비 중인데, '지역균형발전이 국가발전입니다'를 캐치프레이즈로 하여 공공기관 2차 지방 이전 촉구, 수도권 집중 견제, 지방시대위원회 활성화 요구 등을 내용으로 할 것이다.
- 김동진 위원 : -광주MBC 유튜브 채널은 지역 공영방송으로서의 진정성이 잘 드러나는 공간이다. 특히 지난 몇 주간 업로드된 콘텐츠들을 살펴보면, 광주·전남 지역의 일상과 이슈를 다양한 시각으로 담아내려는 노력이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는 인상을 받았다. 뉴스 클립부터 탐방형 영상, 지역 청년과 소상공인의 이야기를 조명하는 기획 편까지 스펙트럼이 넓어 시청자층을 자연스럽게 확장하려는 전략 역시 긍정적으로 보인다. 다만 채널이 가진 잠재력에 비해 성과가 충분히 발현되고 있는지는 조금 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해 보인다. 25만 명이 넘는 구독자 기반을 갖추고 있음에도 상당수 영상의 조회수는 수백에서 수천 회에

머문다. 이는 콘텐츠 자체의 완성도와 별개로 유튜브 플랫폼 특성에 맞춘 제목·썸네일 전략, 시청자 참여 유도 방식, 시리즈 기획의 일관성 등이 아직 최적화되어 있지 않다는 의미일 수 있다. 또한 다양한 포맷이 공존하는 만큼 채널 전체를 관통하는 광주MBC만의 색채가 더욱 선명하게 드러나도록 편성 흐름을 재정비할 필요도 있어 보인다. 그런데도 최근의 탐방형 리포트, 생활 정보형 콘텐츠들은 지역성과 현실감을 갖춘 좋은 시도였다. 이를 기반으로 광주에서 꼭 볼 만한 이야기라는 정체성이 확실해진다면 채널의 영향력은 한층 더 높아질 것이다. 앞으로는 솜품 강화, 시청자 참여형 프로그램, 지역 의제에 대한 해설형 콘텐츠 등 디지털 최적화 전략을 병행한다면 공영방송으로서의 품격은 유지하면서도 플랫폼 경쟁력을 충분히 끌어올릴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

- 반수경 위원 : -<빛나는 나의 도시>에서 처음부터 진행되는 콘텐츠의 내용과 흐름이 다음과 같은 생각을 가지게 했다. 첫째, '당신의 사진첩'이라는 주제가 있는 타이틀로 시청자들의 추억을 소환했는데 이 프로그램의 콘텐츠로 적합한가 하고 생각이 들었다. 두 번째, 단풍이 아름다운 백양사 전경과 곱게 물든 단풍 이야기, 그리고 특색 없는 음식 소개와 더불어 시청자들의 오픈 채팅은 <빛나는 나의 도시> 프로그램의 콘셉트와는 다소 거리감이 느껴졌을 뿐 아니라 가볍고 코믹해서 프로그램의 진정성에 의구심이 생겼다. 세 번째, 전주로 가서 K-문화로 놀아보기 코너에서는 찜질방 문화와 찜질방에서의 라면 먹는 장면이 방영되었는데, 과연 K-문화를 알게 하는 내용으로 적합한지 생각이 들었다. 네 번째, K-문화 중에 수공예 종합 플랫폼이라는 공방의 작품들은 소개하는 내용이 방영되다가 갑자기 또 하나의 문화로 비빔밥 축제를 안내했는데, 전주비빔밥의 차별성과 특색있는 재료나 요리법을 소개했다면 차라리 좋았을 듯했고 여기서 떡볶이나 라면을 소개하는 것은 문화 측면에서의 콘셉트와 어울리는 것이었는지 고민이 필요해 보인다. 또한,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자'에서 육해공 즉, 육-향아리 삼겹살, 해-연어요리, 공-한방오리 불고기 요리소개는 맛의 문화라고 치부할 수는 있겠지만, '씹고 뜯고'란 단어는 비속어는 아닐지 몰라도 다소 어색하고 적절한 단어는 아니라고 생각된다. 마지막으로 광주광역시 구청 등에서 진행되는 문화 등 각종 행사 소개는 <빛나는 나의 도시> 프로그램 콘셉트에 어울리는 내용이었고 시청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보인다.
- 설제학 위원 : -1월13일 방송된 <시사용광로>를 시청하면서 '인공태양'에 대한 의미와 기술개발의 필요성에 대해서 알게 되었다. 핵융합 기술이 단순한 과학 연구를 넘어 무한의 미래 에너지 기술이 될 수 있음을 이해하게 되었다. 특히 나주에 인공태양 연구시설이 유치된다면 지역의 무한한 성장 동력이 될 거라는 기대가 들었다. 청년 일자리 창출, 첨단 산업 생태계가 함께 만들어지며 지역 전체가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다는 희망도 생겼다. 핵융합의 원리를 어렵게만 생각했는데 프로그램을 보면서 '인공태양'이 우리 지역에서 실현될 수 있는 현실적 목표처럼 느껴졌고, 나주가 국가 에너지 사업의 심장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더욱 커졌다. 핵융합 기술의 가치와 지역 유치 필요성을 이해했고, 앞으로도 관련 내용들을 꾸준히 다뤄 주었으면 좋겠다.
- 이미진 위원 : -<시사용광로> '꿈의 에너지 인공태양 나주에 뜰까' 편을 시청했다. 인공태양 연구시설은 태양 에너지원인 핵융합 반응을 지구에서 구현하기 위한 대형 장치 및 실험 인프라를 말하는데 핵융합은 이산화탄소를 배출하지 않아 탄소중립 실현의 핵심 열쇠이고 무한에 가까운 청정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는 꿈의 에너지다. 우리나라는 현재 핵융합의 실용화와 상용화를 위한 대규모 실증시설 구축이 절실한 시점에서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가 있고 에너지밸리가 조성된 나주가 가장 실현이 가능한 후보지라고 보인다. 이를 통해 직간접 고용 창출, 지역 청년들의 과학기술 분야 진출 확대 등을 기대할 수 있으니 이는 지역 사업이 아닌 국가 프로젝트다. 에너지 미래를 설계하는 도시로 도약할 준비를 마친 나주를 응원한다. 이에 대해 광주MBC가 힘을 실어주길 기대하며,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방송에서 다뤄 주길 바란다.
- 양지현 위원 : -창사특집 <시사용광로> '대한민국의 길' 1부는 창사 특집답게 깊이 있는 내용을 접할 수 있어 매우 유익한 시간이었다. 지방시대위원회의 역할과 '5극 3특', '서울대 10개 만들기'와 같은 개념들을 명확하게 정리해 주셔서 이해에 큰 도움이 되었다. 특히 수도권 집중으로 인해 발생하는 부동산·저출생·교육·교통 문제를 알기 쉽게 설명해 주신 점이 인상적이었다. 또한 광주가 직면한 과제와 향후 방향성을 다시 생각해 볼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었다. 임기 내 이루고자 하는 모델이 꼭 실현되기를 기대한다. 아쉬운 점이 있다면, 시청자 질의응답 시간이 마련되었으면 더욱 좋았을 것 같다. 실시간 진행이 어렵다면 사

전 질문을 받아 선별한 뒤 답변하는 방식도 가능했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든다. 아마 지역 MBC 공동 기획 '국가균형성장, 질문 있습니다'에서 이미 충분한 질의응답이 있음을 고려한 선택이 아니었나 싶다.

-10월23일 <빛나는 나의 도시> 가을이 피어나는 곳, 장성 황룡강 편은 영상이 정말 아름다워 가을 여행을 떠나고 싶게 만들었다. 그동안 가을 하면 왠지 쓸쓸함이 떠올랐는데, 이번 영상을 통해 '평화롭고 아름답다, 우리 지역의 가을도 참 좋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좋은 계기가 되었다. 이 지역의 다양한 모습과 명소를 담은 예쁜 영상들을 앞으로도 더 많이 보고 싶다.

○ 유한별 위원 : -광주MBC 단독 보도 '민원 넣었더니 구의원이 항의 전화' 의견이다.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관심과 우려, 개인정보에 대한 중요성이 나날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불법 현수막에 대해 민원을 제기한 민원인의 개인정보가 이렇게 쉽게 유출된 사건이 발생했다. 이에 관해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민원인의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 등에 따라 개인정보 관리자가 이를 철저히 관리해야만 하고, 개인의 동의 없이는 제3자에게 전달할 수 없는 것인데 민원의 당사자가 구의원이라는 사실만으로 이렇게 쉽게 알 수 있다면 민원의 취지 자체가 몰각될 가능성이 높다. 더욱이 구의원과 담당 공무원은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있는바 현실이 더욱 씩씩하기만 하다. 개인정보의 중요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민원인의 신분 노출 등이 더 이상 반복되지 않도록 이 사건의 경위를 끝까지 밝히는 데 있어 광주MBC가 앞장서 주길 기대한다. 역시 단독 보도로 '광주 광산구, 폐기물 무단 방치' 의견이다. 도시 미관 등을 해칠 수 있는 은행나무 열매를 수거하여 황룡강과 국가습지인 장록습지에 방치하였다는 보도를 접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 법을 지키지 않고 있는 현실이 안타까웠다. 지자체의 업무가 늘어나고 과중한 상황이라는 점은 이해하지만, 보도가 시작되자 이를 다른 장소로 옮겼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는 사전에 방지할 수 있었던 일이 아닌가 생각된다. 광산구가 하천 점용 허가도 받지 않고 이를 방치한 행위가 주민들과의 법의 적용에 있어서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이 아닌지 반성이 필요해 보인다. 행정처분을 할 때 실제적, 절차적 타당성을 갖추기 전에 스스로 법을 어기는 잘못을 범하지 않기를 바라고 광주MBC가 광주광역시 각 기초지자체의 행정을 감시하는 등대가 되어주기를 기대한다.

○ 이경주 위원 : -광주MBC에서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공익캠페인 방송을 준비하는 것에 대해 깊이 환영하며 지지한다. 특히 '지역균형발전이 국가발전입니다'라는 캐치프레이즈는 현시대의 중요한 화두를 명확히 담고 있다고 생각한다. 공영방송으로서 MBC가 이처럼 중요한 국가적 과제에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공공기관 2차 지방 이전 촉구'와 '지방시대위원회 활성화 요구' 등 정책적 메시지는 매우 중요하다. 다만, 캠페인 방송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요구가 왜 필요한지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와 비전을 함께 제시해야 한다. 단순히 요구하는 데서 멈추지 않고, 공공기관 이전이 지역경제에 미칠 긍정적인 파급효과와 지방시대위원회의 역할 강화를 통해 달성할 수 있는 지방의 미래상을 구체적으로 시청자들에게 전달해야 한다. 수도권 집중 견제의 필요성을 강조하되, 수도권 시민들에게 '지방이 발전해야 수도권도 지속 가능하다'라는 메시지를 설득력 있게 전달하는 통합적 관점이 필요하다. 캠페인이 정책 당국을 향한 일방적인 '촉구'로만 비치기보다, 실제 지역민의 목소리와 성공적인 지방 발전 사례를 담아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 지역균형발전이 추상적인 구호가 아닌 '모두의 삶의 질을 높이는 현실적인 대안'임을 보여주어야 한다. 본 캠페인 방송이 지역균형발전 논의의 불씨를 잡아당기고, 실질적인 정책 추진의 동력이 되기를 기대한다.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다양한 관심이 필요하며 MBC의 성공적인 캠페인을 응원한다.

-K-푸드 세계화와 남도김치 세계화 가능성 특집기획 관련 제언을 하고자 한다. 11월22일 '김치의 날'을 앞두고, 11월20일 방영한 창사 61주년 특집기획 <김치 세계화 어디까지 왔나>는 매우 시의적절한 기획이라 생각한다. K-콘텐츠와 K-푸드가 세계적 주목을 받는 시점에서, '남도김치'의 세계화 가능성을 지역 방송사가 심층적으로 조명한다는 점은 광주의 문화적 정체성과 산업적 잠재력을 동시에 부각할 좋은 기회다. 광주MBC가 지역의 산업·문화 이슈를 시사와 산업, 시민의 삶이라는 세 축으로 연결하며 균형 있게 다루고 있다는 점을 높이 평가한다. 앞으로도 지속 가능한 주제 중심의 기획을 통해 시청자와 더 긴밀히 소통하는 방송이 되기를 기대한다.

○ 정인영 위원 : -11월13일 <시사용광로>는 나주의 '인공태양(핵융합 에너지)' 유치 문제를 미래 에너지 흐름과 연결해 설명하면서, 다소 어려운 내용을 시청자가 이해하기 쉽게 소개한 점이 좋았다. 핵융합의 안전성,

청정성, 그리고 AI 시대 전력 수요와의 연관성을 명확히 짚어준 것도 도움이 되었다. 다만 방송이 유지 필요성에 좀 더 무게를 두다 보니, 기술적 불확실성이나 장기적인 과제와 같은 부분은 상대적으로 덜 다뤄진 느낌이 있었다. 핵융합이 상용화까지 오랜 시간이 필요한 연구라는 점을 고려하면, 유지 이후 어떤 인력 전략이 필요한지, 지역 산업과 어떻게 연결될 수 있을지에 대한 이야기까지 곁들여졌다면 논의가 더 균형 잡혔을 것 같다. 지역의 기대감뿐 아니라 준비해야 할 현실적인 부분도 함께 제시하는 것이 앞으로의 논의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

-11월18일 <생방송 빛나는 나의 도시>는 이의리 선수의 진솔한 이야기부터 오래된 양옥집의 새로운 공간 활용, 그리고 태안의 가을 풍경과 제철 해산물까지 다양한 지역 이야기를 따뜻하게 담아낸 방송이었다. 특히 이의리 선수의 개인적인 고민과 성장 과정이 자연스럽게 소개되어, 스포츠 스타의 화려함 뒤에 있는 인간적인 면모를 잘 보여준 점이 인상적이었다. 다만 전체적으로 ‘좋은 곳’, ‘좋은 사람’을 소개하는 데 집중하다 보니, 소개된 공간이나 지역이 실제로 어떤 변화나 효과를 만들어 내고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는 조금 아쉬웠다. 예를 들어, ‘양옥의 변신’에서 소개된 공간들이 지역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혹은 이런 도시 재생 프로젝트가 가능하기 위해 필요한 행정적 지원이나 어려움이 무엇이었는지까지 함께 전해졌다면 시청자 처지에서도 더 현실적인 이해가 가능했을 것 같다. 또 ‘태안의 가을 맛’처럼 여행지를 소개할 때는 그 지역이 계절, 환경 변화에 따라 어떤 준비나 노력하고 있는지도 함께 알려준다면, 단순한 관광 정보가 아니라 지역을 지속해 이해하고 지켜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

- 정희 위원 : -11월9일, <보성 열선루 장계쓰기대회>를 시청했다. “신에게는 아직 열두 척의 전선이 남아 있습니다”라는 말은 많이 들었지만, 그것을 작성한 곳이 보성이었다는 것을 처음 알게 되었다. 보성이 녹차로 유명한데, 장계쓰기 대회와 함께 조선 수군병영 체험도 같이 진행되었다고 하는데, 지역을 잘 알리는 프로그램이었다고 생각한다.

-11월13일 <인공태양, 나주에 뜰까?> 인공태양 연구시설 유치전이 경주 등과 각축을 이루고 있는 상황에서 적절한 편성이었다고 생각한다. 1조 2천억 원 규모의 국책사업인 만큼 지역민의 관심을 제고하는데 도움이 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겠다. 또, 국가 AI Computing Center 유치전에서 아쉬움이 있었지만, AI 중심도시 광주는 지속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앞으로도 AI 관련 내용은 지속 다루어 주면 좋겠다. GPU를 기반으로 한 컴퓨팅 외에도 NPU를 기반으로 한 대안도 있을 수 있겠다.

- 이미진 부위원장 : -기타 의견으로 시청자 의견이 제시돼 있다. <시사용광로> ‘꿈의 에너지 ‘인공태양’ 나주에 뜰까?’ 편을 통해 인공태양에 대해 완벽한 이해를 도왔다고 보기에 매우 어려운 분야인 것 같다. 따라서, 지속해서 관련 내용에 관한 관심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앞에서도 위원님들께서 인공태양에 관심을 가지고 여러 의견을 제시해주셨다. 시청 의견에도 역시 동의하며 앞으로도 시청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다양한 관점에서 다뤄 줄 필요가 있으며, 지역 발전을 위해 계속해서 관심을 두길 바란다.
- 김낙곤 사장 : -오늘 제시해주신 의견에 관해서는 해당 부서에 다시 한번 전달하도록 하겠다. 위원님들의 의견은 시청자를 대표하는 만큼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이후 조치 결과에 대해 보고하겠다. 바쁘신 가운데 참석해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린다.

끝.